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 분석

성미경¹, 이유희¹, 윤정원^{2*}

¹마산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²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사

Analysis of Convergence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of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Mi-Gyung Seong¹, Yu-Hee Lee¹, Jung-Won Yun^{2*}

¹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Masan University

²Lecture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Eui University

요약 치위생과 학생들은 임상 현장에서 치과의사 및 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여 유능한 치과위생사 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M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의수준은 .05,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25.0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과 대인관계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조사결과, 인간관계 정도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간관계 정도($p=.019$)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p=.001$)가 유의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임상현장에서의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 시 됨을 감안할 때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대인관계 유능성, 상호작용, 융합적 요인, 치위생과, 치과위생사

Abstract Dental hygienists students are required to be able to interact and maintain relationships with dentists and pati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 affe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provide the necessary data for nurturing competent dental hygienist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93 dental hygiene students in M university. The level of significance was .05 and the statistical program was SPSS win 25.0. As a resul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the degree of human relations and new environmental adaptability.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bvariable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ll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degree of human relationship($p=.019$) and the new environmental adaptability($p=.001$). Interpersonal competence are important in the clinic. Therefore, a convergent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is required.

Key Words : Interpersonal competence, Interaction, Convergence of factors, Dental hygiene student, Dental hygienist

*Corresponding Author : Jung Won Yun(luvdonkey@naver.com)

Received November 26, 2019

Accepted February 20, 2020

Revised January 16, 2020

Published February 28, 2020

1. 서론

인간의 삶은 관계 속에서 출발하여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1]. 대인관계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으로서, 인간 생애에 걸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2]. 대인관계가 만족스럽고 조화로우며,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 성장과 발달은 저해되고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3].

최근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상담 결과 심리적 문제의 대부분이 대인관계로 나타나고 있다[4].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을 형성하지 못하면 심각한 부적응으로 이어지며, 향후 직업적 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5,6].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로 현장에서 예방과 교육, 동료간 대인관계 및 환자응대.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등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고 책임 또한 확대되고 있다[7]. 병원은 다양한 직종과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며, 여러 유형의 환자가 내원하는 곳이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의 다양한 직종과 협력을 주도하며, 환자와 끊임없이 접촉하여 조직성과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8,9]. 치과위생사는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접촉하며 타인을 대하는 태도로 배려와 성실, 존중 등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며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은 중요한 요소이다[10]. 치위생과 학생은 재학 중 임상실습 과정을 통해 치위생 업무를 미리 경험하게 되고 치과의료기관의 다양한 직종 및 환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위생과 학생에서의 대인관계 유능성은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적으로 대학생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1]. 대학생의 좋지 않은 대인관계 경험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여 보다 풍부하고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 발달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12], 향후 사회생활의 부적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대인관계능력은 기본적인 자질로 꼭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고 있지만[13]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능력과의 관련성 연구[14],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능력을 조사한 소와 조[15]의 연구 등이

있으나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경험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인관계에 유능한 치과위생사 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통계

2.1 연구조사 대상

본 연구는 M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였다. 대상자 수 산출근거는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효과크기는 0.5,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 95%로 하여 산출하였고, 응답에 성실한 293명을 최종 연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하였다.

2.2 연구조사 방법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학년, 가족 수성원수를 조사하였고, 대인관계 관련 특성으로 조부모,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인간관계 정도, 새로운 환경 적응도를 조사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uhrmester 등[16]이 개발하고 이동귀, 한나리 [17]가 한국 대학생 대상으로 변안 및 타당화한 도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K-ICQ)를 치위생과 재학생에 맞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한 총 21문항을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분포점수는 Likert 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 특성과 대인관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도구로 사용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을 T-test와 ANOVA로 평균 분석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 도구의 하위변수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하여 조사하였고,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alpha=0.05$ 로 하였으며, 연구의 통계분석에는 SPSS ver 22.0(IBM corp., Armonk, NY, USA)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

일반적인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1.4%, 여자 98.6%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 55.0%, 3학년 45.0% 이었다. 가족 구성원 수는 4명이 61.2%로 가장 높았고, 5명 이상이 23.0%, 3명 12.7%, 2명 3.1% 순이었다. 조부모 거주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경험이 없음이 64.6%,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는 경험 있음이 89.3%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인간관계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좋음 52.9%, 보통 34.7%, 매우 좋음 9.3%, 좋지 않음 2.7%, 매우 좋지 않음 0.3% 순이었다. 본인 인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도 조사 결과 보통 45.4%, 좋음 39.9%, 좋지 않음 7.2%, 매우 좋음 6.5%, 매우 좋지 않음 1.0% 순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N=293)

Variables	Group	N(%)	M±SD
Sex	Male	4(1.4)	
	Female	287(98.6)	
Grade	2	160(55.0)	
	3	131(45.0)	
Number of family	2	9(3.1)	
	3	37(12.7)	
	4	178(61.2)	
	5<	67(23.0)	
Living with grandparent	Yes	103(35.4)	
	No	188(64.6)	
Part-time job experience	Yes	260(89.3)	
	No	31(10.7)	
Relationships	Very not good	4(1.4)	3.66±0.74
	Not good	8(2.7)	
	Normal	101(33.7)	
	Good	154(52.9)	
	Very good	27(9.3)	
New environmental adaptation	Very not good	3(1.0)	3.44±0.77
	Not good	21(7.2)	
	Normal	132 (45.4)	
	Good	116(39.9)	
	Very good	19 (6.5)	
Total		293(100)	

3.2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분석

총 21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대인관계 유능

성 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친한 친구가 기본이 안 좋을 때 그(녀)를 격려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구에게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기 항목이 3.00점으로 가장 낮았다. 모든 항목의 평균 값은 3.46점 이었고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 알파값 .884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Table 2. Reliability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

Competency classification	M±SD	Cronbach's alpher
Ask a new person to do something together or make a suggestion	3.34±0.84	.876
Tell your friends that i don't like how you treat them	3.00±0.85	.883
Helping to deal with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a close friend	3.59±0.67	.877
Accept when there is disagreement	3.71±0.72	.879
Find or suggest something to do with a new person	3.57±0.78	.876
Being able to control angry feelings when fighting close friends	3.39±0.82	.886
Leading conversations with new people	3.38±0.76	.877
Rejecting an unreasonable request from a friend	3.17±0.93	.885
Telling a friend your shame	3.26±0.92	.885
Being an interesting person when you first get to know people	3.29±0.85	.878
Keeping your rights when a friend ignores you	3.43±0.75	.876
Helping close friends deal with family problems	3.59±0.63	.877
Accepting and understanding your friend's point of view while fighting	3.57±0.71	.877
Introducing yourself to people who want to know	3.23±0.86	.875
Not saying anything that could be a fight	3.57±0.74	.886
fighting a friend when the friend has not kept his promise	3.39±0.83	.880
I can say or do them to encourage them when they are not feeling well	3.87±0.75	.877
Solving specific problems with friends without blaming the whole	3.56±0.72	.875
Making a good impression on someone who wants to be a friend	3.61±0.70	.876
When a friend needs help and encouragement, can give advice in an acceptable way	3.64±0.72	.874
Not to be angry with a close friend to avoid a harmful conflict	3.53±0.78	.881

3.3 일반적인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

일반적인 특성 및 대인관계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유능성은 Table 3과 같다. 남자가 3.62로 여성보다 높았고, 학년에서는 3학년이 3.52로 높았다. 가족구성원은 3명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5명 이상인 경우, 2명, 4명 순이었다. 조부모 경험이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값은 없었다. 인간관계 정도와의 비교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고($p=.000$), 새로운 환경 적응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도 유의하게 높았다($p=.000$).

Table 3. Interpersonal competency comparison by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Mean±SD	t	p
Sex	Male	3.62±0.22	0.600	.549
	Female	3.49±0.44		
Grade	2	3.46±0.40	-1.006	.315
	3	3.52±0.49		
Number of family	2	3.52±0.25		.635
	3	3.54±0.49		
	4	3.46±0.45		
	5	3.53±0.43		
Living with grandparent	Yes	3.47±0.43	-0.583	.561
	No	3.50±0.45		
Part-time job experience	Yes	3.50±0.45	1.248	.213
	No	3.39±0.38		
Relationships	Very not good	3.56±0.26 ^{ab}		.000
	Not good	3.18±0.35 ^a		
	Normal	3.32±0.35 ^{ab}		
	Good	3.60±0.44 ^{ab}		
	Very good	3.77±0.56 ^b		
New environmental adaptation	Very not good	3.16±0.40 ^a		.000
	Not good	3.25±0.30 ^a		
	Normal	3.37±0.39 ^a		
	Good	3.59±0.43 ^{ab}		
	Very good	3.99±0.49 ^b		

*** $p<.001$, ** $p<.01$, * $p<.05$

3.4 대인관계 유능성 하위변수 간의 관련성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수 간의 관련성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평균값 비교에는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이 3.59로 가장 높았고, 타인배려, 관계형성 및 개

시, 권리나 불쾌감 주장 순이었다.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타인배려와 갈등관리 간에 .708**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Variable	Mean±SD	1	2	3	4	5
Relationship	3.43±0.48	1				
Rights or displeasure Claiming	3.31±0.55	.591**	1			
Consider to others	3.54±0.47	.668**	.549**	1		
Conflict management	3.59±0.61	.553**	.471**	.708**	1	
Proper action	3.59±0.63	.520**	.375**	.611**	.565**	1

*** $p<.001$, ** $p<.01$, * $p<.05$

3.5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인간관계 정도($p=.019$)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p=.001$)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032$),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F값은 8.377이고, 설명력은 17.2%이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interpersonal competence

Independence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728	.468		5.829	.001
Sex	-.137	.212	-.036	-.646	.519
Grade	.033	.049	.037	.665	.506
Number of family	.020	.035	.032	.580	.562
Living with grandparent	.011	.051	.011	.208	.836
Part-time job experience	-.039	.079	-.027	-.488	.626
Relationships	.089	.037	.149	2.365	.019
New environmental adaptation	.182	.036	.314	5.008	.001

F=8.377, $p<.001$, $R^2=.172$

4. 고찰 및 제언

인간의 삶은 지속적인 대인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회적 존재로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질과 양에 따라 자아 형성 및 발달, 인격 형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18].

대인관계 유능성은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19].

치위생과 학생들은 향후 임상 현장에서 치과의사 및 환자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좋은 대인관계 능력은 임상 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20],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유능성에서 성별은 남자, 학년은 3학년, 가족구성원은 3명인 경우, 조부모 경험이 없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음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값은 없었다. 인간관계 정도와의 비교에서는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고($p=.000$), 새로운 환경 적응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도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p=.000$),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수록,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조[21]의 연구에서도 학교생활을 잘하고, 학년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생들의 많은 경험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값 비교에는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이 3.59로 가장 높았고, 타인배려,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 주장 순이었다.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타인배려와 갈등관리 간에 .708^{***}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수 값을 나타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임 등의 연구[22]에서는 대인관계 유능감의 하위요인인 타인배려와 갈등관리가 감사성향과 인지적 유연성에 상당 부분 설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감사의 일기를 작성하거나, 문제해결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한 훈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대부분 여학생으로 안 등[23]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

보다 관계유자와 갈등해결에 더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갈등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사회생활의 부담감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는 인간관계 정도($p=.019$)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p=.001$)는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p=.032$), 대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손과 서의 [24]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감이 클수록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높고, 배[25]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 유능감이 사회적 적응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

대인관계 유능감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또래 관계의 질, 학업 및 직업 성취, 우울, 불안 등 정서 상태와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시기에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학생은 장차 사회구성원의 역할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의 행복과 적응을 위해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관계형성, 갈등관리,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임상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M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293명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간관계 정도와 대인관계 유능성 비교결과,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았고($p=.000$), 새로운 환경 적응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도 유의하게 높았다($p=.000$). 대인관계 유능성 하위변수 간의 관련성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중 타인배려와 갈등관리 항목이 .708^{***}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수 값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간관계 정도($p=.019$)와 새로운 환경 적응도($p=.001$)이었다. 일부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편연구이므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도구를 치위

생과 학생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유의한 결과로 검증 되지는 못하였지만 추후 세밀하고 체계적인 연구모형과 변수의 보완을 통해 경험요인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할 후속 연구 방향을 세울 수 있었음에 의미가 있다.

REFERENCES

- [1] H. Y. Kim.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body esteem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Master's these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Seoul.
- [2] H. K. Kim. (1992).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on the reduction of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 [3] Y. H. Han. (2012). *The relationship of parents' language control type with young children's language expressiveness and social ability*. Master's thes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4] S. J. Ju. (2012). The effect of human relationships class on university students' interpersonal problem level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7), 79-99.
- [5] S. J. Lee. (2009). The effect of sense of social connectedness and autonomy on college adjust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esting a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2), 229-248. DOI : 10.16983/KJSP.2009.6.2.229
- [6] C. B. Lee & H. S. Jeon. (2015). The Effect of Family Differentiation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6), 465-483. DOI : 10.15703/KJC.16.6.201512.465
- [7] C. S. Lee et al. (2012). Influential job-related characteristics for th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possibility of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12(6), 666-674.
- [8] H. R. Ko. & J. H. Kim.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3), 413-23. DOI : 10.5977/jkasne.2014.20.3.413
- [9] J. H. Yoo & J. H. Kim. (2016).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6(1), 62-9. DOI : 10.17135/JDHS.2016.16.1.62
- [10] H. W. Cheon, M. S. Yu & M. J. Jun. (2018) The converged influence of character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49-57. DOI : 10.22156/CS4SMB.2018.8.6.049
- [11] J. S. Lee & H. J. Chung. (2016). The relationship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elf-differentiation with interpersonal compet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1(1), 99-121. DOI : 10.21321/jfr.21.1.99
- [12] H. J. Jeong. (2014).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aegu Catholic, Gyeongsangbuk-do.
- [13] E. J. Lim & M. H. Lee. (2019).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279-286. DOI : 10.14400/JDC.2019.17.5.279
- [14] S. J. Kim & H. H. Kim. (2013). Impa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13(3), 304-313.
- [15] M. H. So & Y. Y. Cho. (2016). Relations between interpersonal ability, social support,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in Gyeonggi provinc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7(3), 117-129.
- [16] D. Buhrmester, W. Furman. &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17]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 [18] C. D. Ryff.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19] M. Argyle, M. Martin & J. Crossland. (1989). Happiness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and social encounters. In J. P. Forgas, & J. M. Innes (Eds.), *Recent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etherlands, North-Holland: Elsevier*, 189-203.
- [20] Y. E. Kwon, S. Y. Kim. (2019).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967-981. DOI : 10.22251/JLCCI.2019.19.3.967
- [21] H. K. Cho. (2018). The Influence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ue to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2), 475-483.
DOI : 10.15207/JKCS.2018.9.12.475

- [22] J. H. Lim, E. Y. Jo, Y. K. Oh. & W. Y. Yun. (2016).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gratitude and cognitive flexibility on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7(2), 93-120.
DOI : 10.14816/SKY.2016.27.2.93
- [23] H. R. Ann. (2011). Differentiation of self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between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Parent Education Association*, 8(1), 87-114.
- [24] K. H. Seo & S. Son. (2014). Relationships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19(2), 619-635.
- [25] S. M. Bae. (2015). Validat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adults.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16(3), 51-65.

성 미 경(Mi-Gyung Seong) [정회원]



- 1996년 ~ 현재 : 마산대학교 교수
- 2006년 2월 : 경남대학교 생명공학과 졸업(이학박사)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 노인 구강건강, 대인관계 유능성
- E-Mail : mgseong@masan.ac.kr

이 유 희(Yu-Hee Lee) [정회원]



- 2018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9년 3월 ~ : 마산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융합 연구, 치위생과, 대인관계 유능성
- E-Mail : eu1983@naver.com

윤 정 원(Jung-Won Yun) [정회원]



- 2019년 8월 : 동의대학교 치위생학 전공 (치위생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치위생학, 대인관계, 치과 위생사

· E-Mail : luvdonkey@naver.com